

군산해양경찰청 3년만에 부활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조직명 변경·정보과 신설 개청식 행사 진행... 치안업무 등 본격 돌입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되면서 해체 후 2년 8개월만인 26일 해양경찰청이 새 모습으로 출범했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청 개청을 기념해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5개 지방해양경찰청 18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학교 등 모든 소속 기관에서 개청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한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세월호 침몰사고에 책임을 지고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의 지위를 잃은 뒤 국민안전처 산하로 편입돼 기관명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다. 그 후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폭력 저

항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해상안전 외에 해상치안이나 영해수호 임무까지 담당하는 해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해경은 외청의 시대를 다시 맞았다.

군산해양경찰서의 경우에도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경찰서'로 조직명을 바꾸고 6개과(課)에서 정보과가 새로 추가된 7개과로 바뀌게 된다.

또 주요 항·포구에 위치한 '해양경비안전센터'가 '해양경찰 파출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해양안전과 치안업무에 돌입했다.

채광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단순하게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탄생해야 한다"며 "많은 고민과 반성을 통해 변화된 해



새 모습으로 출범한 해양경찰청 사진.

양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설된 정보과(외사, 정보, 보안) 인력을 급명간 인사

발령 후 국제범죄와 해상치안 정책 등 다양한 정보, 수사 활동과 조직 내·외부 안정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군산=장현 기자

여름철 '농작업 안전' 당부

군산시 내달 18일까지 경로당 등 순회 교육·캠페인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는 밭 작업과 하우스 내 작업을 주로 하는 여성농업인과 농기계를 많이 다루는 농업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7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와 12개 읍면동사무소, 20개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폭염, 태풍,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한 농작업 환경의 안전관리와 농약중독, 농기계사고 등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다.

또한 함께 진행되는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NH농협순해보험,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하여 농작업 안전 재해 전문 외래강사와 농업기술센터 자체강사로 농작업 안전 교육팀을 구성하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작업

재해 및 농기계 사고의 위험과 예방'을 위한 농업인용 표준 교육안을 토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이번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농작업시 재해 관리의 필요성과 현황을 알리고 농작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농부증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제시 할 방침이다.

또한, 농촌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 사례와 재해사고 사례를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시설하우스 내 고온다습한 농작업 환경,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농기계 사용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농작업 유해인에 대한 작업관리지침과 안전재해 예방수칙 생활화를 주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순회교육 기간 중에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야간 반사판 부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장현 기자

하림 순살찜닭, 푸드트럭에서 맛 본다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서 오늘부터 이틀간 무료 시식행사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김홍국)이 "27일과 28일 이틀간 서울광장과 덕수궁길에서 열리는 '2017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에서 '하림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림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를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것으로 보고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하림 안동식 순살찜닭'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을 덕수궁길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식행사는 하루 2차례, 오전과 오후에 100인분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식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인 SNS 채널에 하림 푸드트럭 현장사진과 함께 #하림, #하림푸드트럭 해시태그를 올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하림 선물세트 및 하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나들이를 겸해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많을 것 같아 무료 시식 푸



드트럭을 기획했다"며 "맛있고 먹기 편한 하림 안동식 순살찜닭 무료 시식에도 참여해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림은 지난 5월부터 전국 곳곳으로 소비자를 찾아가 제품 무료 시식회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하림 푸드트럭'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림 푸드트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하림 자연실록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turalhar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를 맞는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는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시형 홍수와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이 심화하는 등 물 순환이 왜곡되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강한 물 순환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빗물축제(Rain Festival) △물순환 박람회 △국제 물순환 학술토론회 △BE+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자기주도학습 하계캠프 운영

군산시 중학생 240여명 대상

군산시의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중3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동기부여와 학습 흥미를 유발하여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캠프(이하 '캠프')를 운영한다.

올해로 6년째 운영되는 이번 하계 캠프는 전북도와 창조관에서 1기(120명, 7. 26 ~ 7. 28)와 2기(120명, 8. 2 ~ 8. 4)로 나누어 추진되며, 내용은 학습방식에 따른 학습동기부여, 가장 중요한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중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지도, 유형에 따른 학습전략, 예복습기법 등을 주제로 하여 8교시로 나뉘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주말 학습)에서 배출한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재학생 12명의 멘토가 참가자들과 조를 이뤄 자기주도학습법, 학습 플래닝, 학습 및 생활태도, 임시 노하우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이번 캠프는 지난 7월 14일에 실시된 3중 진단검사(인성, 학습, 진로)를 토대로 진로와 목표대학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1:1 개인별 상담을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대성 군산시 인재양성과장은 "앞으로 창의 인성 리더십 프로그램 등 현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농촌지도사업 변화·혁신 '견인차'

익산시농기센터 직원 대상 직무역량교육 추진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전 직원이 농촌지도사업 다변화에 대응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초 농정업무와 조직 개편되면서 농촌지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도직 공무원들의 기술향상과 직무연찬 필요성에 따라 직무역량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그 첫 번째로 7월 26일 오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특강, 넷째주 월요일에 직원 1인 1과제를 발표하는 직무연찬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이날 직원대상 특별교육은 '새 정부 농정방향과 지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전북연구원 황영도 연구위원의 특강이 진행됐다. 새 정부 농정방향에 맞춰 농업 방향을 제시해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진선섭 소장은 "전 직원이 조직의 가치를 공유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농업의 지속성장과 미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강과 직원 간 정보공유, 소통이 필요한 만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병원-시 보건소, 환자 안전의 날 행사 성료

익산병원은 환자안전 문화 확산과 감염관리 활동 정착을 위해 지난 25일 병원 로비에서 익산시보건소와 함께 '2017년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환자와 직원대상 환자안전 O/X 퀴즈와 기념품을 제공하며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으며 특히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뷰박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손씻기

체행행사는 환자와 내원객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감염관리실에서는 사전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손 배양검사 결과를 게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환자안전위원회에서는 병원장을 비롯한 환자안전위원들이 점검표를 이용한 환자안전 라운딩을 실시해 병원내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환자안전 예방활동도 실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